



제270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 선 광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 시급!”

“대전시 원스톱 포털 구축 필요!”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김 선 광 의원

● 김선광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방안을 찾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그리고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로 대표되는 수도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산업 등 국가 주요기반이 집중되었고 이를 좇아 이동한 인구는 초과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이루었지만 특정 지역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국토 발전의 불균형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세계시장 앞에 한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국가적 차원에서도 특정 지역의 발전은 그 지속가능성이 100년이 가지 않는데 이보다 좁은 대전광역시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 성장은 과연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지금의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준비된 표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1은 서구와 유성구 두 자치구에 대전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주택, 일자리, 교육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 및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구와 가장 적은 대덕구를 비교한 표2를 보시면 이미 서구의 인구수가 대덕구 인구의 2배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이 우리 시 자치구 간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3을 보시면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개발 및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그에 따른 지역 내 총생산의 격차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4는 1순위인 유성구와 5순위인 동구의 지역 내 총생산을 대조한 것입니다.

두 자치구 간의 지역 내 총생산의 차이가 무려 11조 6,522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가 지향하는 세계 일류 경제도시는 이 잘나가는 2개의 구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대전시민이 거주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중구, 동구, 대덕구도 소외됨이 없이 균형 있는 발전 성장을 이루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대전광역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로써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중차대한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2012년 대전도시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 대전신용보증재단, 2015년 대전문화재단 그리고 2019년 대전테크노파크 본부가 원도심으로 이전하였으나 기대했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미준공의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사정 또한 깊이 살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지난 2월 15일 일자리 경제진흥원을 방문하셔서 “진흥원 위치가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원도심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신 때에는 “독립청사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부터 이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신 바 있는데 일자리 경제진흥원과 시설관리공단을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사진1과 사진2를 순차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원도심 내 중심가에 방치된 채로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준공 건축물이 자리한 대지 및 당해 건축물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자치구별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청사를 원도심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드리며 산하기관의 입지로 원도심 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원스톱 포털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민에게 대전시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라는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전시는 시 메인 홈페이지와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에 시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은 많은 관련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이용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충실하게 정보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에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들이 이용자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전시의 대학생들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사업에 대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답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시민들이 대학생이기에 그들의 주 관심사인 일자리 및 청년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불편함은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노인, 여성, 청소년, 소상공인, 기업가 등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들과 정보들이 대전시 홈페이지에서는 명확한 분류체계 없이 흩어져 있는 인상이어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통합적인 정보 검색 체계를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도 해야 하기에 정보 전달에만 철저하게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대전시의 행정, 생활, 기업정보, 문화·관광정보 등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시각화하여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축된 대전시 원스톱 포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현재 대전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고 별도의 네이밍을 통해서 일종의 브랜드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 검색을 하고 싶을 때 네이버, 구글과 같은 포털의 이름을 떠올리듯이 시민들이 대전시와 관련하여 무엇이든 궁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포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또는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취업포털 사이트명인 '사람인'에서 착안하여 대전의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포털이라는 의미에서 '대전인'과 같은 명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명칭은 차후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대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시정을 펼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럴 때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편익은 물론 대전시정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분야를 막론한 대전시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써 대전시 원스톱 포털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 주제들의 키워드는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원스톱 포털의 구축은 적극행정의 견지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 잘 알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소외 없이 골고루 잘사는 대전시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김선광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대전시 원스톱 시정 포털 구축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고 평소에 도시 균형발전과 행정정보 개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내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심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일찍 생겼던 원도심의 균형이 상당히 깨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가 꼭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 구가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가 갖고 있는 산하기관의 원도심으로 추가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구에 있는 산하기관이 7개, 유성구가 7개, 서구가 3개, 동구와 대덕은 전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은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일자리 경제진흥원인데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가보면 굉장히 산속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유성구민들도 잘 모르는 곳에 있는데 일자리 경제진흥원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도심 내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백운교 원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일단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2027년까지 거기를 비워주는 상황이라 결국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전관광공사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 기관들이 굳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 기왕에 옮기는데 공공기관이라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국가산단 신청할 때도 그만한 토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도시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교촌동 일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최적지라고 봤습니다.

또 서구 갑 지역 가수원 너머에 보면 별판이 좀 있습니다, 거기와 기성동까지 단절돼 있는데 엇그제 불 나서 가면서도 이 지역에서 기성동까지 도시 전체를 연결해야 기성동이나 외곽에 있는 도시도 발전하겠다.

그래서 대전시 정책을, 지금 유성 쪽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고 더 하방을 해서 서구 갑 지역과 중구 지역 그리고 동구, 남아있는 대덕 일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하고 나머지 지방산단, 우리가 직접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산단은 이런 가능한, 30만 평 이내의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것을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도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리틀돔구장 건설도 지난번에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원도심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음악단, 제2시립미술관도 가능하면 원도심에 배치하는 것이, 지금 서구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또 서구는 나름대로 예술의전당이랑 다 확보하고 있고 인근에 보면 방위사업청도 서구 중심가에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성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한 교촌동 일원부터 서대전IC 그리고 충남방적 자리 그리고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하는 이외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발전 견인책을 좀 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이전할 때 동구, 중구, 대덕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때 독립기관으로 다 할 거냐 아니면 단독청사로 들어갈 거냐는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또 김선광 의원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원도심에 짓다가 사업체가 부도난 건축물들이 좀 있습니다.

동구에 가면 현대오피스텔 건물이 지금 거의 황폐해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 건물 그리고 사업하려고 하는 과거 부청사 자리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매입했을 때와 신축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매입도 과도한 사업비와 열토당도않은 매입 요구를 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불가능하고요, 최소 적정한 가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예 홍물처럼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계속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가시티 같은 대흥동 건물이 해보니까 그걸 매입하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1천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축물들 중에 매입했을 때 3백억 규모의 건축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과연, 중구 같으면 옛날 경찰서 자리나 여러 가지 자리들, 대전역 같으면 뒤에 혁신도시로 우리가 80층에서 100층 정도 내외로 구상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합하고 대덕구도 연축동이나 대덕구청사 이전한 부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좋은 정책들을 집어넣는데 공공기관이 갔을 때의 파급효과 아니면 개발했을 때의 파급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원스톱 시정포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정보를 쉽게 접근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 구청과 협력해서 개편하는 동시에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대학가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월세 지원하는

청년사업이 있는데 몰라서 지원 못 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털시스템을 다양한 행정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한번 더 깊이 해서 종합적으로 원스톱 시정포털을 새롭게 개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